

##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우울감 변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은혜\*·강종혁\*\*

This research examines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Senior Job Supporting Program as we approach the 7th anniversary of program implementation. In order to analyze the policy's actual effectiveness, this study sought to discover to what extent the welfare of the senior population has been improved by this program. Rather than measuring the overall impact of the program on the senior populati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actual improvements within a specific research category; seniors suffering from depression who participate in the program. To achieve the end research goal, the study focuses on behavioral change in the sampled senior groups. In addition, policy analysis is applied to better explain the policy effectiveness after the program introduction.

Regarding methodology, this research is an empirical study conducted alongside a reassessment of previous related research. The data sample was collected from senior welfare centers in the 5 Seoul City districts, out of a total of 25 districts, with the lowest average residential income: Yeongdeungpo-gu, Nowon-gu, Jongno-gu, Dobong-gu, Eunpyeong-gu.

While setting up 4 independent variables causing depression: health, psychology, economic and social status, the degree of depression and independence were fixed as the two separate dependent variables. Other statistical variables: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previous occupation, and marital status were also accounted for by the research in order to further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Senior Job Supporting Program from various perspectives.

Sample data was collected between March 8 and August 10 2010, where 3 surveys of the sampled senior population were conducted according to different time frames. In the 2nd and 3rd surveys, the same questions were asked before and after the employment program to measure the impact of the program. In total, 387 survey question sheets were returned. Against this background, the comparative analysis found that:

- ① Participation in the Senior Job Supporting Progra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mproving depression.
- ② Overall depression symptoms for senior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were reduced after employment.
- ③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reduced for seniors across all social groups after employment.
- ④ To determine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depression,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introduced in this paper. Also, through the regression analysis, the four most significant variables causing depression, by order of importance, were found to be health, psychology, economic status and social status.

[Key Words: Job Business of the Aged, Depression of the Aged]

\* 행정학 박사, 서울 은평구청 재정국장(chkim2176@hanmail.net).

\*\* 행정학 박사, 서울현대전문학교 교수, 사)북방문제연구소 연구위원(kjh-prince@hanmail.net).

## I. 서론

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와 소득 창출이라는 복합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혹은 건강 증진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산, 인력, 사업의 전문성 등 여러 가지 제약 요건으로 인하여 매우 형식적인(변재관, 2006) 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그 동안 노인일자리사업에 관련한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들은 많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는 정책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다 보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고, 예산 낭비 또는 선심성 정책 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학문적 고찰이 필요하다.

한편 현대의 노인들은 강제적 혹은 자발적으로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역할 상실과 사회에서의 지위 저하 등은 노인들의 우울감을 높이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은 노령화에 따라서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 사정의 악화, 사회로부터의 고립 및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 불능 등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우울감이 더욱 높아가는 경향이 있다(이민수 등,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성을 입증하려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노인들의 우울감의 변화 관점을 도입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우울감의 정도가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 전과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① 참여 노인들의 우울감의 전후 비교 차이, ② 사회적 특성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과 후의 우울감의 수준의 변화, ③ 노인 우울감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 참여 전과 참여 후의 우울감과 자립도 변화의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이 그 수혜 대상인 참여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연구의 미시적 접근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는 노인들이 일을 통해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노인 계층의 소외와 사회적 계층 간 경제적,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 보다 더 건강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으며, 또한 국가적 또는 정책적 차원으로는 다가오는 고령 또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책을 마련

함으로서 정부의 문제 해결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II.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노인우울에 관한 이론적 고찰

### 1. 노인일자리사업의 의의와 효과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보전·사회관계 개선·건강 증진·노인인력 활용 등 다양한 노인 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8).

또한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노인 적합 직종의 개발 및 보급 시책을 강구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1조에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등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한다.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 연구논문들의 분석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연구에서 사업 참여자의 소득 효과 분석에서 (김미곤, 200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 참여 전후에 가구 빈곤율은 4.3%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료비 절감효과 연차별 분석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이 20.1%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전체 비용의 16.2%를 회수한 것과 같다고 분석하고,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여성 및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노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음을 밝혀냈다(이석원, 2007).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효과성을 경제적 도움, 육체-정신적 건강증진, 사회적 관계 개선으로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육체-정신적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혜진, 2008; 함석주, 2008).

종합적으로 볼 때 노인일자리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소득 보전을 통한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일자리를 보급하는 정책으로서, 노인들에게 있어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사회관계 개선 등의 노인들의 생활전반에 걸쳐 만족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다 미시적인 접근을 통한 구체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연구의 큰 의의가 있겠다.

## 2. 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내외 선행 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 연령, 소득, 결혼 상태, 교육 수준, 경제적 상태, 가족 유형, 신체적 건강, 주관적 건강, 기능적 건강 등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들이 많다.

노인우울의 연구 중 보건소와 경로당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하지 않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종교가 없는 노인일수록 우울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았으며,<sup>1)</sup>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자 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중소도시 거주자일수록 우울 정도가 심하였고, 경제적 상태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중증인 질병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녀,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이 적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하다고 나타났다.<sup>2)</sup>

한편 또 다른 연구에서는 중복되는 연구 결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우울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 정도가 더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 정도가 더 높고, 혼자 살수록 우울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체적 건강이 열악할수록 우울 정도가 더 높고, 주관적 건강이 열악할수록 우울 정도가 더 높고, 일상생활동작능력<sup>3)</sup>과 같은 기능적 건강이 열악할수록 우울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노인우울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적인 측면을 밝혀내기 위해 노인의 우울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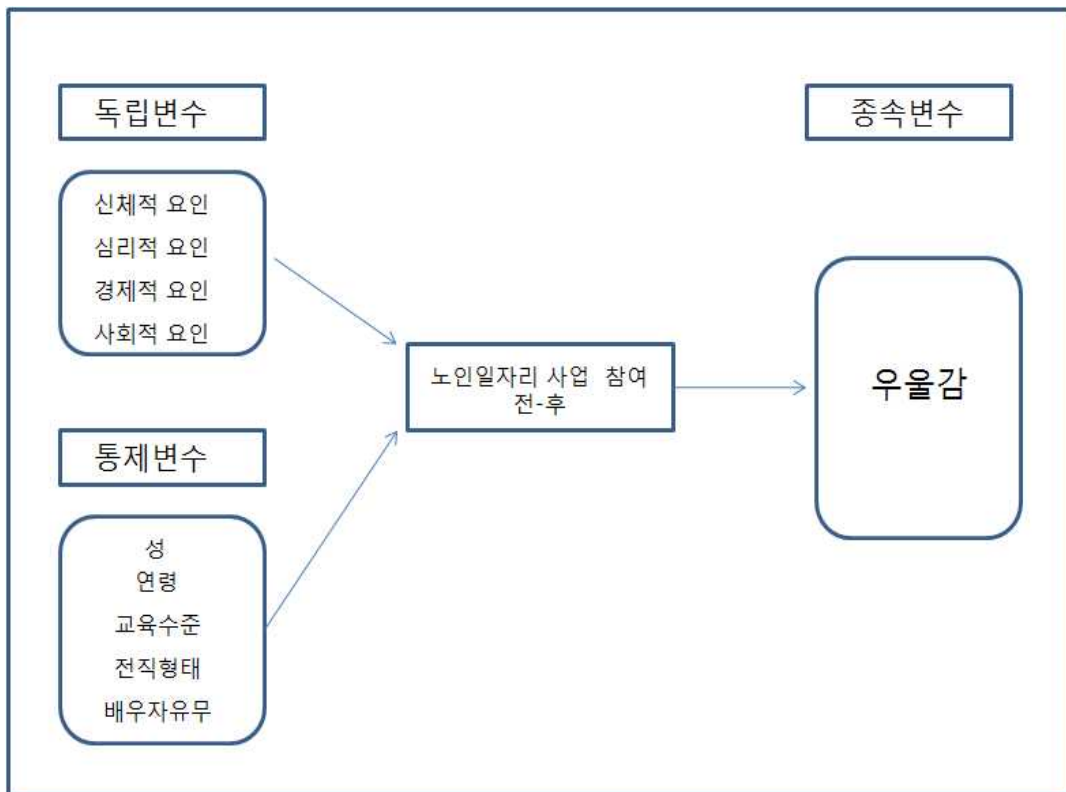
- 1) 김진순 외(1999), “일 지역의 보건소 및 경로당 이용노인의 우울성향과 관련요인”, 「한국노년학」, 19(3), PP. 141-153.
- 2) 김병하·남철현(1999), “유배우 노인의 우울정도와 관련요인 분석연구”, 「한국노년학」, 19(2), PP. 173-192.
- 3) 일상생활동작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 ADL)이란 개인의 자기유지(self-maintenance)와 독립적인 지역 사회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활동으로서, 신체적 일상생활동작능력(Physical ADL)은 개인위생, 옷 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 보행능력 등의 기본적인 자기관리능력을 의미하며,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은 외출 및 대중교통 이용, 은행 및 관공서 이용, 사회적 관심 등의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도구적 활동능력을 의미한다.: 권중돈(2004), 전게서, PP.126-128.
- 4) 강희숙·김근조(2000), “일부지역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과 우울과의 관련성”,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6(1), PP. 451-459.; 김오남(2003), “농촌노인의 건강수준, 사회적 지지와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8(2), PP. 5-22; 허준수·유수현(2002),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복지」, 13, PP. 7-35; 이평숙외 4인(2004), “노인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우울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4(3), PP. 477-484.

### Ⅲ.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우울감 변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 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전과 참여 후의 노인들의 우울감 증상의 변화와 영향 요인을 측정함으로써 실제 노인일자리사업이 가져다주는 특정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으로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그림 3-1>은 연구 목적에 맞게 전체적인 분석모형을 설정한 것이다.

<그림 1>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모형



한편 독립변수에 대한 측정 위해서 조작적 정의와 측정지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신체적 요인은 신체적 건강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노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병의 유무를 말한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신체 건강, 생활의 활력으로 구성하였고, 이러한 신체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⑤ “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 ⑥ “내 생활의 활력이 넘치지 않는다” 등의 지표로 측정하고자 한다. 둘째, 심리적 요인은 노인들의 정신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노인들이 가질 수 있는 정신적 긴장, 압박감, 불안 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① “평소 내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 ② “내 인생이 흥미롭지 않다고 느낀다” ③ “내 인생은 가치가 있지 않다고 느낀다” ④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 등의 지표로 측정하고자 한다. 셋째, 경제적 요인은 스스로 경제적 능력 또는 여유가 있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의존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 요인은 경제적 여유로 구성하였고,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⑨ “내 생활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의 지표로 측정하고자 한다. 넷째, 사회적 요인은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 사회적 요인은 존재감, 의사소통을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⑦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⑧ “내 주변에 마음을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의 지표로 측정하고자 한다.

한편 종속변수로는 노인의 우울감을 설정하였다. 우울감이란 정상적인 기분 변화에서 병적인 상태에 이르는 근심, 침울감, 무기력감 및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Battle, 1978).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 요인으로는 무력감, 인지적 저하, 불행감, 근심 걱정(초조함)의 4가지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에 대한 측정 위해서 조작적 정의와 측정지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무력감이란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았을 때 드는 허탈하고 맥 빠진 듯한 느낌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무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① “나는 평소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든다” ⑧ “나는 앞날이 별로 희망적이지 않았다” ⑨ “나는 평소에 화가 나고 짜증이 많이 난다” ④ “나는 평소에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든다” 등의 지표로 측정하고자 한다. 둘째, 인지적 저하란 인지는 지각·재인(再認)·상상·추론을 포함하여 지식을 구성하는 모든 의식적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지적 저하란 이러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지적 저하를 측정하기 위해서 ② “나는 평소에 내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⑥ “나는 평소에 자신감이 없다” ⑦ “나는 평소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등의 지표로 측정하고자 한다. 셋째, 불행감이란 행복하지 아니한 느낌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행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③ “나는 평소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든다” 의 지표로 측정하고자 한다. 넷째, 근심 걱정이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

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심 걱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⑤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다” ⑩ “나는 잘못은 내 탓으로 돌린다” 등의 지표로 측정하고자 한다.

그 밖에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전직 형태, 배우자 유무를 구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자 설계하였다.

## 2. 조사 설계

본 연구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노인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집단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의 모집단 중 일정 지역을 선정하여 표본 추출하는 방식으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선정은 판단 추출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였고, 표본의 추출 방법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개별 노인에 대한 추출은 성별, 연령, 학력, 전직 등을 감안하여 층화 표본추출 방법으로 모집단을 각각 동질적이며, 상호 배타적인 몇 개의 하위 집단 혹은 층으로 나누고 이들 각 동질적인 하위 집단 또는 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sup>5)</sup>을 선택하였다.

이에 본 연구논문에서 연구의 측정 대상은 연구 조사의 대표성의 확보를 기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최하위 단위인 25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5개 구인 영등포구, 노원구, 종로구, 도봉구, 은평구 내의 노인복지관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5개 구내의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하여 약 38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표본 모집 기간은 2010년 3월 8일부터 2010년 8월 10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자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2차와 3차 조사는 동일인을 대상으로 면대면 사전,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 3. 분석방법

본 논문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 빈도 분석 (Frequency Analysis), T-test 분석, 교차 분석(cross Analysis),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회귀 분석

5) 방법 - 모집단을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분류한다. - 표본의 크기를 결정한다. - 분류된 소집단 중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 학력, 전직, 배우자 유무 등이 우울감의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감안 하여 그들의 대상을 구분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Regression Analysis) 등의 통계 기법 등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사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고자 함이다.

첫째, T-test 분석을 통하여 참여 노인들의 우울감의 전후 비교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교차 분석을 통해 사회적 특성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과 후의 우울감의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노인 우울감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우울감의 조사는 Yesavage, J. A. T. Brink & Y.L. Rose(1983)에 의해 개발한 노인 우울검사(Geriatric Depression Scale 이하 GDS)를 정인 과-곽동일-조숙행-이현수(1997)가 표준화한 한국형 노인 우울검사(Korean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이하 KGDS) 관련성이 높은 10개의 문항을 Likert 척도를 원용하여 활용하였으며, 본 도구의 표준화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러한 측정도구는 인지 기능이 손상된 노인에게도 적용 가능하고 비전문가에 의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노인 우울증의 1차 선별도구로 유용하기에(Yesavage, J. A. T. Brink & Y. L. Rose(1983) 선정하였다.

한편, 데이터 처리 방법으로는 독립변수에 대한 데이터의 경우 기존의 연구 논문 등에서 검증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4가지의 우울감과 자립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구성하고 이를 다시 9가지의 세부 지표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보다 실증적인 데이터를 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구한 9개 세부 지표들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에 대한 데이터의 경우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우울감의 정의와 연계한 개념으로 구분하고 우울감 측정 시 4개의 하위 요인을 구성하고 이를 다시 10가지의 세부 지표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데이터는 각각의 하위 요인별로 평균하여 합산한 값으로 종속변수를 처리하였다.

## IV.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 분석

### 1.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음 <표 1>은 조사 수집된 자료 중 분석에 활용된 전체 387명 응답자의 특성을 나타낸 결과표이다.



&lt;표 1&gt;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문항	빈도	구성비
성별	남	185	47.8
	여	202	52.2
연령별	70세 미만	134	34.6
	70세 이상	253	65.4
학력별	고졸 미만	140	36.2
	고졸 이상	247	63.8
전직별	사무 및 전문직	140	36.2
	기술, 서비스	124	32.0
	단순, 가사	123	31.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유	228	59.0
	배우자 무	159	41.0

상기 <표 1>에서 남녀의 성별은 전체 총 응답 노인들 387명 중 남성이 185명(47.8%) 여성이 202명(52.2%)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구분에서는 전체 응답 노인 387명 중 70세 미만 응답자는 134명(34.6%), 70세 이상인 응답자는 253명(65.4)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별로는 고졸 미만 응답자는 140명(36.2%), 고졸 이상인 응답자는 247명(63.8%)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전직의 구분에서는 사무 및 전문직 응답자는 140명(36.2%), 기술, 서비스 응답자는 124명(32.0%) 단순, 가사 응답자는 123명(31.8%)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유-무의 구분에서는 배우자가 있다고 한 응답자는 228명(59.0%), 반면 배우자가 없다고 한 응답자는 159명(41.0%)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조사 대상의 응답 분포는 70세 이상, 고졸 이상,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남-녀의 구분과 전직의 구분에서는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우울감변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

###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 노인 우울감의 변화 비교 분석

아래 <표 2>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 노인 우울감의 변화 비교 분석을 나타낸 결과표이다.

&lt;표 2&gt;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 노인 우울감의 변화 검정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양측)
대응 1 전 우울 & 현 우울	.6716	.6341	20.836	386	.000

앞서 제시한 <표 2>의 대응표본 검정표를 살펴보면 T값은 20.836, 자유도(df)는 386, 양방향 검증의 유의도는 0.00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의도 (P) = 0.000 < 0.05 이므로 노인일자리사업 실시에 따른 우울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노인일자리사업 실시에 따른 우울의 정도에는 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 노인의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 노인들의 경제적인 도움과 사회적 관계성의 증대로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되며 또한 일을 통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즐거움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 노인 우울감 수준의 변화 정도

아래 <표 3>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 노인 우울감 수준의 변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표이다.

**<표 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 우울감과 참여 후 우울감의 수준 변화**

(단위: 명, %)

전 우울감 수준의 정도			
저 2.5미만	중 2.5이상~3.5미만	고 3.5 이상	합계
81(21)	217(56)	89(23)	387(100)
현 우울감 수준의 정도			
저 2.5미만	중 2.5이상~3.5미만	고 3.5 이상	합계
315(81)	62(16)	10(3)	387(100)

앞서 제시한 <표 3>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과 참여 후의 우울감 수준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에는 우울감의 수준의 정도가 저(2.5 미만) 21%, 중(2.5이상~3.5미만) 56%, 고(3.5 이상) 23%로 나타났다.

반면에 참여 후의 변화는 저(2.5 미만) 81%, 중(2.5이상~3.5미만) 16%, 고(3.5 이상) 3%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우울감 변화 수준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 높은 우울감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 낮은 우울감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실제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들의 우울감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들의 사회적 특성별 우울감 수준변화 비교

아래 <표 4>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 노인들의 사회적 특성별 우울감 수준의 변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표이다.

&lt;표 4&gt; 사회적 특성별 일자리 사업 참여 전후 우울감 수준의 변화 비교

(단위: %)

구분			정도		
			저	중	고
성별	남	전후비교	67 증가	49 감소	17 감소
	여	전후비교	55 증가	32 감소	23 감소
연령	70세 미만	전후비교	43 증가	32 감소	21 감소
	70세 이상	전후비교	64 증가	42 감소	22 감소
학력	고졸 미만	전후비교	58 증가	31 감소	27 감소
	고졸 이상	전후비교	62 증가	43 감소	19 감소
전직	사무 및 전문직	전후비교	65 증가	48 감소	17 감소
	기술·서비스	전후비교	56 증가	35 감소	21 감소
	단순·가사	전후비교	58 증가	31 감소	27 감소
배우자 유무	배우자 유	전후비교	65 증가	44 감소	21 감소
	배우자 무	전후비교	54 증가	30 감소	24 감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 참여 후의 조사 대상자의 사회적 특성별 우울감 수준의 변화의 내용<표 4>에 따르면 ① 성별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 우울감의 변화에서 남성의 경우 우울감의 정도에서 중의 정도가 49%, 고의 정도가 17%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중의 정도가 32%, 고의 정도가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결과 우울감의 정도는 여성의 경우 우울감이 감소되는 정도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별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 나타나는 우울감 수준의 변화는 상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연령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 우울감의 변화에서는 70세 미만의 경우는 우울감의 정도에서 중의 정도가 32%, 고의 정도가 21%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70세 이상의 경우는 중의 정도가 42%, 고의 정도가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 연령에 따른 우울감의 변화에서는 연령의 차이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 나타나는 우울감 수준의 변화는 상대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학력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 우울감의 변화에서는 고졸 미만의 경우는 우울감의 정도에서 중의 정도가 31%, 고의 정도가 27%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고졸 이상의 경우는 중의 정도가 43%, 고의 정도가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 결과 우울감의 고 수준에서 저학력의 경우 우울감이 감소되는 정도가 고학력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

어 학력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 나타나는 우울감 수준의 변화는 상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전직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 우울감의 변화에서는 분석결과 사무 및 전문직의 경우는 우울감의 정도에서 중의 정도가 48%, 고의 정도가 17% 감소하였으며, 기술, 서비스의 경우는 중의 정도가 35%, 고의 정도가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 가사의 경우는 중의 정도가 31%, 고의 정도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 결과 단순, 가사의 경우 우울감이 감소되는 정도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직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 나타나는 우울감 수준의 변화는 어느 정도 상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배우자 유무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 우울감의 변화에서는 분석결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우울감의 정도에서 중의 정도가 44%, 고의 정도가 21%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중의 정도가 30%, 고의 정도가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우울감 감소의 비교 분석 결과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다소 높은 감소율을 보였지만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의 노인 우울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노인의 우울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관성 분석

아래 <표 5>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과 참여 후의 우울감 차이와 우울감의 영향 요인과의 상관성 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과 후의 차이를 중심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이다.

**<표 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의 차이에 따른 우울감 요인들의 상관성**

	우울감 차이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우울감 차이	1.000	.528**	.509**	.269*	.250**
신체적		1.000	.821**	.230*	.412**
심리적			1.000	.355*	.357**
경제적				1.000	.117*
사회적					1.000

\* p<0.05 \*\* p<0.01

상기 <표 4-5>에 따르면 먼저 우울감 차이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상관 계수를 보면 신체적 요인(p= .528), 심리적 요인(p= .509), 경제적 요인(p= .269), 사회적 요인(p= .25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 우울감의 영향 요인의 관계성에서는 신체적 요

인> 심리적 요인 > 경제적 요인 > 사회적 요인의 순으로 노인들의 우울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의 우울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래 <표 6>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 전과 후의 우울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이다.

<표 6> 노인 우울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신체적	253	.056	.350	4.555	.000
심리적	117	.055	.165	2.122	.034
경제적	0.075	.027	.127	2.769	.006
사회적	0.026	.038	.032	.687	.492
R <sup>2</sup> = .311		Adj= .304	F값= 43.099	P=.000	

\* p<00.5 \*\* p<0.01

상기 <표 6>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전과 참여 후의 우울감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적 요인 > 심리적 요인 > 경제적 요인 > 사회적 요인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전체 설명력은 31%이고 분석 모형의 F값이 43.099이며 99% 신뢰 수준에서 R제곱 변화량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 응답 노인들에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신체적 요인( $\beta=.350$ ), 심리적 요인( $\beta=.165$ ), 경제적 요인( $\beta=.127$ ), 사회적 요인( $\beta=.032$ ) 순으로 나타났다.

## V. 요약 및 정책의 시사점

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와 소득 창출이라는 복합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과 함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혹은 건강 증진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참여 전과 참여 후의 우울감의 변화를 측정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의 결과 및 기존 문헌의 고찰과 더불어 실증 분석

연구를 병행하였다,

한편 서울시에 소재하는 노인복지관에서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전직 형태, 배우자 유무 등의 사회적 특성별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 우울감의 정도와 참여 후 우울감의 변화 비교에서는 실제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 노인의 우울감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전체 참여 노인들의 우울감 변화 수준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 높은 우울감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 낮은 우울감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사회적 특성별 참여 전과 참여 후의 우울감의 전체 정도 비교에서는 각 조사 대상자의 사회적 특성과 관련한 우울감의 정도 변화는 대체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보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의 우울감이 현격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④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노인 우울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한 다중 회귀분석 분석에서는 노인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순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따른 우울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논문에서는 앞서 수행한 분석 결과의 시사점을 토대로 한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을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우울에 대한 감소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해서는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의 확대 발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사업 예산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정부 예산의 확대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생산성을 높여서 부족한 재원을 자체 조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성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선결 과제일 것이다. 특히 기업과 연계, 일반시민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인식 전환을 통한 다양한 생산적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과 참여 후의 영향요인의 변화 분석에서 볼 때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적인 측면은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은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심리적 요인, 신체적인 요인의 해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사업과 병행하는 부가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신체적인 변화는 노인들의 경우 자연적 악화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관리 또는 체력 관리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한다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심리 상담치료 서비스 및 담당 직원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노인들의 심리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 주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특성별 프로그램을 특색 있게 개발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저학력의 경우 단순, 가사의 경우 우울감의 감소가 그렇지 않는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할 때 프로그램이 매우 단순한 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참여 노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혜를 위해서는 그들의 사회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이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게 되고 만족도와 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희숙·김근조. (2000). 일부지역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과 우울과의 관련성.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6(1). 451-459.
- 고재욱. (2007). 노인 고용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에 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옥규. (2007). 빈곤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평택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곤. (2006).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남 진. (2009). 노인일자리사업 효과성의 영향요인 연구. 경남대 대학원.
- 박경하. (200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인적자본, 사업참여 요인이 프로그램 참여효과에 미치는 영향. 노인인력개발포럼, 창간호.
- 변재관·김창규. (2005). 30만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추진전략. 2005 노인일자리사업 혁신포럼 자료집.
- 변재관. (2006). 한국에서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현황과 정책방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_\_\_\_\_. (2007). 차기정부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방향. 제9차 노인일자리전문가포럼 자료집.
- 이문국. (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구의 탈빈곤 결정요인 요인연구. 송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8).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자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노인인력개발포럼, 창간호.
- 이문국·조준행. (200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경제상태 및 건강증진 효과분석.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 이석원·임 재. (2007). 노인일자리사업의 의료비 절감효과 연차별 분석.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이석원. (2008).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문가 포럼. 서울: 한국노인인력개발연구원.
- 이평숙 등. (2004). 노인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우울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4(3). 477-484.
- 황수섭. (1999). 노인의 우울과 관련되는 심리,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준수·유수현. (2002).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 7-35

【국외 문헌】

- Battle. (1978).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Report. 42-2. 745-747.
- Cella, D. F. (1994). Quality of Life. Concepts and Definition. *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9-3.
- Cutler, S. J. (1979).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A cautionary research note. *Journal of Gerontology*. 28-1. 96-100.
- Erdman, P. (1979). Stress and Adaptation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34-6. 841-851.
- Graney, M. J. (1975). Happiness and Social Participation in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30.
- Hay, C. G. (2005). *Predictors of quality of life of elderly end-stage renal disease patients: An application of Roy's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 Jun, H. J. (2001). Productive Role Activity and Mental and Physical Health among Older Adults the Dissertation. *Univ of Wisconsin-Madison*. 175.
- Lance, C. E., Mallard, A., & Michalos, A. C. (1995). The test of the causal directions of global-life facet satisfaction relationship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4. 69-92.
- Larson, R. (1978).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33-1. 109-155.
- Lazarus, R. S. (1996). *The Role of Coping in the Emotion and How Coping Changes the Life Course*. Handbook of Emotion. Adult Development and Aging. CA: Academic Press.
- Lewis, F. M. (1983). Experienced personal control and quality of life in late-stage cancer patient. *Nursing Research*. 32-2. 113-119.
- McIntosh, B. R. & Danigelis, N. L. (1995). "Race, Gender and the Relevance of Productive Activity for Elder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0-B. 229-239.
- Michalos, A. C. (1985). Multiple discrepancies theor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4. 347-416.
- Pavot, W. & Diener, E.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164-172.
- Schuessler, K. F. and Fisher, G. A. (1985). Quality of Life Research and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120-149.

---

<논문접수일: 2011.09.26. / 심사개시일: 2011.10.17. / 심사완료일: 2011.11.22.>